

제6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교육 개선의 조건

전성연/고려대 교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정의 역할

이귀윤/이화여대 교수

지역사회와 좋은 학교 만들기

공중원/조선일보 논설위원

제도 및 정책과 좋은 학교 만들기

김재범/중앙대 교수

학교교육 개선의 조건

전 성 연

(고려대 교수)

1. 우려되는 교육상황

최근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빠른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작금의 학교 교육 상태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60명에 가깝고 수업부담과 잡무부담에 지친 교사가 교과서와 백묵을 갖고 수공업적인 일제수업을 하는 모습은 이제 수업의 당연한 모습으로 느껴지기조차 한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빈약한 학교 교육 모습은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니, 올림픽 4위국이니, NICSU하는 들뜬 한국의 호칭이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인 모습이다.

이와 같은 후진성은 그 원인이 주로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부족에 연유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쪽으로 노력한다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보다 더욱 중요한 학교문화의 민주화, 인간화는 재정투자의 증대만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최근에 우려되는 상황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우리 앞에 터져 나오고 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이것은 시험의 증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고등학생의 유언이다. 이것을 어찌 죽은 학생만의 독백일 할 것인가? 최근의 중·고등 학생 자살 사건은 결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고문을 해요.” 이것은 독일에서 살다가 돌아와 어느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울면서 한 말이다. 경찰의 성고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지만, 이 여학생은 학교 교사에 의한 단체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떻든 시험의 증압에 못 이겨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고, 학생 체벌이 공공연하다는 것은 우리 학교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예가 될 것이다. 청소년 비행의 난폭화 및 증가 추세, 대학생 중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신병리의 징후들은 학교 교육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학교 문화가 경쟁적, 결과지향적, 획일적으로 되어 가면 그곳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경쟁의 논리와 기술만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꼭 차게 될 때에는 사회해체, 공동체의 와해 등 건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문제가 학교만의 책임일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학교교육 문제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동적 학습 태도와 나약성을 보이는 학생 자신, 수단으로서의 교육관에 철저히 얽매어 있는 가정, 과성취 지향과 규칙 초월적 경쟁이 만연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에 익숙하고 교육투자애 별로 열의가 없는 정부 등 여러 관련 요인이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이 분담된다고 해서 학교의 책임이 결코 경감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는 일이다.

획일적인 교육과 객관식 위주의 평가에서 오는 교육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아인슈타인이 한국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기계적이고 메마른 교육 풍토에서는 그의 천재성을 키우지 못하고, 눈치보는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도태되기가 십상일 것이다.

최근에 수학 올림피아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밝혀진 수학 교육의 실상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전국 204개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수학 특기자 1,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0점을 받은 학생이 27%였으며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6.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형식은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4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정답 고르기 훈련만을 받아온 학생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학생들보다도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 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의 고귀한 창의력의 싹은 말라

버리고 기존의 틀에 눈치 빠르게 적응하는 사회화의 기능만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가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모방해서 만들어 내는 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나, 인류문화에 공헌할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일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학교교육의 새로운 조건모색

규격화되고 경직된 학교 교육과 교육 환경을 민주화, 인간화시키자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교사가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분위기는 자유이다.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함께 그에게 부적절한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풍토가 학생들의 생존권이라 볼 수 있는 이 자유를 여러 가지 명분으로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예를 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둘째로 교사는 학생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일 수가 없고 더욱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그 자신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완성의 존재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들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실수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로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느낌은 학생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성과에 있어서의 편차보다도 더 큰 자아개념상의 편차가 발견된다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을 존중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넷째로 협조적 공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별화와 집단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협조적 공존이란 타인을 경쟁의 대상이나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구성하는 나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이다. 대단히 어려운 조건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와 같은 평화와 조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다면 학교 풍토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상호경쟁과 상호불신의 메마른 풍토로 변해갈 것 같다.

학교 교육과 환경을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을 살려 가는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이념적, 실천적 조건들은 물론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키워야 할 청소년들은 기존의 틀에 잘 적응하고 경쟁적 가치에 익숙하고 창조보다는 모방을 더 잘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해 가는 인간 즉 자아실현인의 육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교육 내적 여건은 이와 같은 이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의 모든 인적·물적 환경은 학생의 자아실현을 억압하는 쪽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학생은 자유보다는 임의적인 규율에 종속을 강요당하고 이와 같은 학교의 엄한 규율은 학생에게 정답과 합리성만을 요구하는 일체의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 보다는 자기 모멸감 자기 무능감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협조보다는 이기심이 더 실용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터득하게 된다.

3.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외적 전략

교육문제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실 꾸러미와 같아서 얽힌 실오라기 하나를 풀어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신념 있는 교장이 깊은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를 소신껏 운영하고자 해도 그러한 의욕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의 문제를 엮어매고 있는 고리들에 대하여 동시에 접근해 가지 않는 한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노력이란 별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무수히 경험해 왔다. 학교 교육의 내적 개선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및 교육정책과 같은 학교외적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학교외적 개선전략은 그것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효과를 나타내기엔 오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즉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교육 내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교육 개선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적 접근이 요망된다.

첫째, 국민 일반의 직업관이 크게 개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식 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이 광범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매스컴(특히 TV)에서도 직업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로 묘사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체 전반에서 고용구조 및 임금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졸자나 고졸자간의 임금격차 해소,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구조가 제자리를 바로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전반에서 여유문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것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극대화라는 생산문화였다. “하먼 된다”는 일념으로 몰아부쳐온 것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였다. 낮과 밤이 있어서 일하고 쉬는 것이 조화를 이루듯 이제 우리도 생활의 질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문화의 폭을 넓혀야 할 시점에 이른 듯한 느낌이다.

사회 정책적 접근이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천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요구된다. 이것에 비하면 교육 정책적 접근이란, 훨씬 구체적인 개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적 전략이 과감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대학입시제도는 모든 학교 교육 문제를 얽어매고 있는 핵심적인 고리이다. 이 대학입시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선 대학입시는 현재와 같은 대입학력고사라는 단일지수에 의해 지배되는 획일주의로 그 단계가 불명료하다. 학력고사를 적성검사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나라에서 적성에 대한 연구가 학생 선발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을 완전히 되돌려 주는 것이 입시제도개선의 단기적인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적성 검사든 다른 대안이든 간에 충분히 연구된 이후에 입시

의 새로운 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교육과정을 직접 모방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학문 분야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교과목 수가 대폭 감축되어야 할 것이며 내용도 정선해서 담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와 담당 수업시간 수를 현재와 같이 두고는 아무리 기상천외의 방법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학교 교육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포부를 밝혔지만 가장 기본적인 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을 회피한 채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교원의 지위를 현재보다 훨씬 높여주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1974년에 제정된 일본의 “인재확보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본이 세계 정상 국가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일본 교사들의 공을 결코 과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교사들은 비슷한 학력, 경력의 타 직종 종사자에 비해 평균 140%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확대재생산이란 점에서 교사에게 투자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 부조리를 근절해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부조리는 다른 곳의 부조리와는 틀려서 인간 신뢰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소한 부조리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 직무에 충실해 온 30만 교직원 전체의 신망을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다.

제5공화국이 무너지고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화가 급속히 추진된 과정에서 그 동안 교육계에 누적되어왔던 온갖 비리가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었던 교육계에 대한 신망이 무너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교육계를 이제 뽕뽕 얼려버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다소간의 아픔이 따르다 할지라도 교육계의 부조리는 물리적·외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에서의 자성과 성숙으로 해결해야 한다.

4.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 내적 전략

교육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인을 외적 요인으로 돌리고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특히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개혁의지가 없다면, 좋은 학교 만들기만 한 날 구호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좋은 학교란 지역이 좋거나, 시설이 좋거나, 학부모들이 열성이거나, 교장의 리더십이 뛰어난 학교가 아니다. 좋은 학교란 교육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교육의 현실을 보면,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첫째,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급하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가 교과과정을 앞당겨서 가르치거나, 복수교과서를 사용하거나, 특별활동을 생략하거나 하는 등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학입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파행성이 교사에게는 직무부담을, 학생에게는 학습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경쟁적으로 주요 교과에 노력을 집중시키게 됨으로써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나 새로 설립된 학교나 교육과정 및 그 운영상에 별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교육의 맹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수-학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교실상황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교육방법은 지식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는 형태이다. 이를테면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지식 전달자라는 오래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사는 별 장비 없이 교육에 임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

는 과학기술이나 공학적 장비는 이상하게도 교실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탐구과정과 집단활동 과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학교 교육이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에만 집착되는 한 그것은 문화창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제 요소의 갈등과 반목의 골을 좁히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협조적 공존을 위한 제반 집단활동의 경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지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공학적 제 방법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근거에 비해 너무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 학업성취도라는 단일 지수 외에 여러 대안적 교육성고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능력은 지적 능력인데, 지적 능력 중에서도 문제해결이나 인지전략과 같은 고차적인 지적 능력이 아니라 주로 정보 이해 수준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에 머물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의 인생 나머지 부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교육이란 단지 단기적 목적의 수단적인 의미 밖에는 없을 것이다.

대안적 교육성고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겠지만 문제 해결력,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고차적인 지적능력 이외에도 창조적인 자기표현 및 기존의 미적 기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심미적 능력, 정당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사회 성원간에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건전한 직업관과 그에 처한 직업 기술적 기능을 익히는 경제적 능력, 자존심이 있고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사고와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도덕적 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평가관과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평가체제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 무원칙, 무절제하게 시행되는 각종 평가는 학생들에게나 교사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우선 평가의 횟수가 너무 많고 평가의 결과가 수업의 실제에 환류되어 수업을 개선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학생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도록 하고 시험보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가세하는 것이 기동력 있는 상업주의이다. 과학적 객관적 평가라는 명목으로 실시되는 학원 또는 입시출판사의 컴퓨터 채점 평가지는 학교 교육을 상인

의 상행위에 예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시험이 잦으면 학생은 시험 불안이 가중되어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교사에게는 체점 기록 등 직무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꼭 필요한 평가만 교육목적에 비추어서 실시하고 평가의 결과도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석차, 학교석차, 학급석차 등을 명시하여 학생들을 강박에 시달리게 하는 등의 비교육적 관행은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방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식민지교육의 상징인 학생 체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사회 전 분야의 민주화 조류에 발맞추어 학교에서의 학생체벌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데 전문성이 있고 학생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의 우세를 빌미로 결코 학생을 체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체벌은 순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을 향상, 발전시키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학생을 강압적으로 교사에게 종속시킴으로서 증오심, 불안, 긴장,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장애와 심리적인 갈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 만일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교사가 체벌을 사용한다면 그는 그의 교사로서의 적성과 전문성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학생 체벌이 반사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체벌을 하는 교사 자신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개인에 대한 체벌도 추방되어야 하지만 단체 기압이라는 군국주의의 유물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성의 재고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위한 교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직을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전문성의 수준은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문교육과 함께 교사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수련이 요구된다.

교사가 남이 넘볼 수 없는 전문성을 확보할 때 수업에 있어서 자율권(교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반강제적인 보충수업의 실시라던가 전문적인 수업장학기능의 결여와 행정확인 장학의 범람 등 교수권을 침해하는 내외적 요인이 많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권익을 스스로 옹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행위의 성과는 피교육자에게 귀속되고 교사 자신

에게 경제적인 이익의 형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전문직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교직을 봉사직 또는 이타적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린 학생들을 전인격적으로 다루는 이타적 전문가인 교사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사의 이상적 자아,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수용과 애정, 직업과 신분에 대한 긍정적 신념, 특히 학생에 대한 동반자적 신뢰감 등은 교사의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이다. 교사의 자아개념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르치는 기술, 학습지도 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만일 교사가 일그러진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인격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태도를 학습하게 되는데 만일 교사가 모방과 동일시를 위한 모델 제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미 그 교사는 교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 문제의 해결과 개선은 앞에서 제시한 학교 외적 제반요인과 교사의 자기 수련을 필요로 하는 학교 내적 요인이 서로 순 기능적으로 협응할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